

노한 문학 번역에서 나타난 생략과 환원의 양상 고찰: 문체와 번역 전략의 관점에서*

강 동 희
(한국외대)

1. 서론

러시아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구조적 특성상 담화 내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ellipsis)이 가능하고, 또한 조사와 어미를 통해 생략된 문장 성분을 추측해 환원(restoration)할 수 있다. 한국어 또한 조사나 어미를 통해 격을 나타내는 언어로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우며, 담화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박청희 2012: 174). 이러한 문장 성분의 생략은 언어의 경제성 및 텍스트 내 정보 과잉과 결부된 것이며, 생략의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과잉을 완화할 수 있다(Грудева[그루데바] 2007: 4). 러시아어와 한국어는 두 언어 모두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한 언어로, 화용적 또는 문법적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424). 아울러 2022 러시아학 관련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어학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심화·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주신 경북대 백경희 교수님과 이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지적해주시고 수정 사항을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로 추측이 가능할 때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하다(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외 2019: 34).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문장 내에서 생략이라는 기제가 사용된다는 유사점이 있지만, 그 역할과 유형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맥락 또는 통사적 구조를 통해 생략된 문장성분을 유추할 수 있고 환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Поеду домой.” [Pojedu domoj(집에 갈 거야).]라는 러시아어 문장에서는 주어 생략되었으며, 그 주어의 인칭은 동사의 어미변화 형태를 근거로 1인칭 단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집에 갈 거야”라는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를 담화의 맥락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다.

수많은 러시아 문학들이 그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었으며, 단연 그 방법은 번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같이 번역된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로는 충실성과 가독성을 꼽을 수 있다(이상원 2005).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원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착어의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읽히는 작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번역문에서 원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번역가는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명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김순미 2010: 128). 과연 노한 문학 번역에서는 원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명시화라는 번역 전략에 의해 한국어 번역에서 환원되었을까? 아니면 원작의 스타일을 살려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를 그대로 보존해 번역되었을까? 생략된 문장 성분의 번역 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은 번역가가 A언어와 B언어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작의 문체를 분석하여 번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생략되어 번역되었는지, 아니면 환원되었는지는 생략 기제의 번역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한 문학 번역에서 문장 성분의 생략과 환원 메커니즘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고, 이를 문체와 번역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어 ST(Source Text)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한국어 TT(Target Text)에서도 원문의 생략 기제를 그대로 보존했는지, 아니면 환원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문체와 번역 전략의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노한 문학 번역에서 ST의 생략 기제가 TT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2) 노한 문학 번역에서 ST의 생략 기제가 TT에서 보존된 경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3) 노한 문학 번역에서 ST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TT에서 환원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선행연구 분석

2.1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생략에 관한 선행연구

기능 문법의 관점에서 생략은 동일한 대상이 선행할 때 이에 대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Halliday and Hasan 1976: 144, 박창희 2013: 13에서 재인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생략은 문장 성분의 복원이 가능하고 이것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일 때를 말한다(박윤철 2008: 173-179). 생략의 기제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경제성과 간명성으로 말의 반복을 피하는 것으로(문영자 2005: 17; 김일웅 1984: 5-6; Салапура[살라푸라] 2019: 138) 생략은 맥락을 통해 완전한 형태로 복원이 가능하거나 또는 추측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 문장 성분으로 복원될 수 있다(문영자 2005: 18-20).

문장 성분의 생략은 한국어에서는 흔한 현상으로(문영자 2005: 17-18), 특히 한국어 대화문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1인칭 또는 2인칭 주어를 자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향을 보인다(김해연 1999: 84-85; 이나라 2014: 146-147). 생략이 가능한 조건으로는 ‘회복가능성, 동일성 조건, 비초점 조건’이 있으며, 생략의 기능을 ‘기능성, 간명성, 결속성, 강조성, 회피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박창희 2013: 42-65).

생략의 유형은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주어, 상황어, 목적어, 술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생략된 조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속격 조사, 여격 조사, 보조사 접속격 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영자 2005). 대명사의 생략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생략의 유형을 ‘상황 생략, 개념 생략, 되풀이 생략’으로 분류한다(김일웅 1984: 7-10).

생략의 요인은 언어내적요인과 언어외적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순길

2012). 담화의 맥락상 주어 없이도 이해가 가능하다면 생략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항상 생략되는 것이 아니며 대조의 요소가 필요할 때 주어는 생략되지 않고 오히려 명시화할 수 있다(정연창 2007: 118). 즉 화용적 관점에서 화자의 의도나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번역가가 번역을 할 때 원문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도착어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시 원문의 생략 구조를 따르지 않고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여 명시화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밖에도 한국어에서는 통사적 필수 논항의 생략에 관한 연구, 분열문에서의 삭제 구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최성호 2013; 박소영 2014).

러시아어에서 생략에 관한 연구는 영주어(null subject)의 속성, 생략의 유형, 명사구의 생략, 술어의 생략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었다(남혜현 2005; 엄순천 2006; 정정원 2015; 이은순 2007). 러시아어 담화에서는 생략의 조건을 ‘선행성과 동일성’으로 보고, 생략의 대상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어휘의 공유에 의한 생략, 상황의 공유로 인한 생략, 인지의 공유로 인한 생략’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생략을 잉여 정보로 보고 추측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 문장 성분으로 규정한다(엄순천 2006: 398-406).

문장 성분의 생략 또는 명시화는 단순히 신규 정보의 유·무, 언어의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담화의 화용적인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 즉 러시아어가 대명사 탈락(pro-drop) 언어에 속한다고 하여 항상 생략이 가능함을 뜻하지 않고, 테마-레마(theme-rheme) 구조의 차원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Касевич[카세비치] 2019: 316).

언어의 특성에 따라 생략 현상은 러시아어에서처럼 인칭별로 동사 변화형(paradigm)이 존재하는 언어일 때 영주어, 즉 대명사 탈락 언어의 조건을 갖추지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처럼 인칭에 따른 동사 변화가 형태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대명사 주어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생략된 요소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 즉 화제(topic)일 때 나타난다(서승현 2002).

지금까지의 생략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각각의 언어 환경에서만 진행되었고, 러시아어 텍스트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ST에서 사용된 생략의 기체가 TT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한 번역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2.2 번역학에서 생략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하고 문법적 또는 화용적으로 생략된 문장 성분의 복원이 가능한 언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노한 문학 번역에서는 원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명시화라는 번역 전략에 의해 한국어 번역에서 환원되었는지, 또는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가 그대로 보존되었는지는 번역가가 충실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취한 번역 전략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학의 관점에서 생략 기제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은 번역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이므로 번역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번역학에서 생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국 단편 소설에서 인칭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을 수집하여 5개 언어인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각각 생략된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언어별로 인칭대명사의 생성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했다(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외 2019).

주어 생략문과 무주어문의 한중 번역 양상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신문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략의 유형을 ‘반복 생략’과 ‘문맥 생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번역 방법을 ‘주어 추가하기, 주어 생략하기, 틀 바꾸기’로 분류해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중 번역 전략을 제시했다(최유곤, 주선 2017).

자막번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략과 삭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략의 유형을 ‘답화 표지의 생략, 연결어구 생략, 대용어 생략, 부가어 생략, 기타 어구 생략’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윤철 2008).

한영 문학번역의 대화체에서 생략된 문장 요소를 생략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번역 방식의 유형별로 기술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한국 문학작품을 두 종의 번역본과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 TT1은 충실성에, TT2는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번역하여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번역 방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박옥수 2013). 즉 충실성에 따른 번역에서는 원문에서의 생략된 구조를 그대로 옮겨 축어역을 했고, 가독성에 중점을 둔 번역에서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역 등의 방식을 적용해 번역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의 언어 방향에서 생략 현상

을 고찰한 연구도 있지만,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언어 간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을 때 적합한 번역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생략의 번역 양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노한 문학번역에서의 생략과 환원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한국어로 번역된 러시아어 문학 텍스트를 선정했으며 문학 작품의 장르는 중편 및 단편 소설로, 되도록 대화문이 삽입된 작품을 선별하고자 했다. 상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서술문에서는 생략 기제를 사용할 경우 독자와의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반면 대화문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생략의 기제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2인 이상의 화자가 마주하고 발화가 이루어지므로 생략의 빈도도 많이 발생한다(박옥수 2013: 171-172).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략 기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대화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다. 분석 대상으로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독자는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등장인물의 대화가 구어체로 표현되는 만큼 생략의 기제가 빈번히 사용되었을 거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된 서적을 기준으로 총 3권이며, 이는 『유리 나기빈¹⁾의 단편집』, 세르게이 도블라토프²⁾의 옴니버스식 중편소설 『여행가방(Чемодан)』, 빅토리아 토카레바³⁾의 『눈사태(Лавина)』이다⁴⁾. 『유리 나기빈

-
- 1) 유리 마르코비치 나기빈(Юрий Маркович Нагабин, 1920.04.03.~1994.06.17.) - 소련과 러시아의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 2) 세르게이 도나토비치 도블라토프(Сергей Донатович Довлатов, 1941.09.03.~1990.08.24.) - 러시아의 작가.
 - 3) 빅토리아 사모일로브나 토카레바(Виктория Самой ловна Токарева, 1937.11.20.~) - 소련과 러시아의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의 단편집』에 수록된 4편의 작품들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현대 러시아인들의 삶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그려지고 있고, 『여행가방』은 세르게이 도블라토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여행가방 속 물건들의 추억을 떠올리며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적 단면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눈사태』는 주인공의 불륜 이후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내면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세 저자 모두 러시아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로 주로 중·단편 소설을 집필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으며,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들에서도 작가 특유의 스타일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 있다.

3.2 분석 절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러시아 문학 작품의 ST와 한국어 TT의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수집하고 ST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TT의 텍스트를 병렬로 정리했다. 작품별 문장 수, 대화문의 수, 그리고 대화문 중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작품별 전체문장 수 및 대화문 수, 대화문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 수

	작품명	전체문장 수	대화문 수	대화문 중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 수
유리 나기빈 단편집	메아리	221	127	42
	백발급구	850	547	24
	타인의 심장	78	24	4
	성공의 절정 (현대적 이야기)	248	88	22
여행 가방	핀란드 산 양말	236	128	25
	특권층 구두	254	42	17
	점잖은 더블버튼 양복	232	121	40
	장교용 벨트	253	118	46
	페르낭 레제의 잠바	171	41	17
	포플린 셔츠	172	36	5

- 4) 분석 작품의 러시아어 원문은 유리 나기빈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단편집에 실린 각각의 단편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고, 그 외 두 편의 장편소설은 전체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참조했다.

	겨울모자	239	115	23
	운전장갑	221	106	35
	눈사태	1334	671	118
	총계	4509	2164	418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작품의 러시아어 원문에서 수집한 전체문장 수는 4,509 문장이고, 이중 대화문의 수는 2,164문장이며, 이중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 수는 418문장이다.⁵⁾ 본 연구의 목적이 원문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대화문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생략 기제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생략된 문장 성분을 환원시켰는지를 보기 위함이므로 대화문 중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ST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418개의 문장을 번역문과 비교하였고 이를 ‘생략 기제 보존’ 유형과 ‘문장 성분 환원’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두 유형별로 각각 하위분류 항목을 문장 성분별로 분류하였는데, ‘주어, 목적어, 동사’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산정하고, 주어의 경우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ST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TT에서 보존 또는 환원된 빈도를 정량 분석하고, 생략 기제 보존 유형과 문장 성분 환원 유형에 따라 번역 전략을 정성 분석했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러시아어 ST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5) 본고에서 수집한 생략 문장 수의 비율을 한국어 소설에서의 생략 현상을 통계적으로 접근한 박청희(2013)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생략된 문장 성분의 비중이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3편의 한국 소설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 성분의 비율은 주어 37% > 목적어 6% > 서술어 4%의 순이었다면(박청희 2013: 73), 비록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대화문에 한정하였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러시아 소설의 대화문에서는 주어 85% > 서술어 12% > 목적어 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두 연구에서 주어의 생략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러시아 소설에서는 술어의 생략 비중이 목적어의 생략 비중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와는 차이를 보였다.

어떠한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TT에 반영된 번역 전략 유형에 따라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4.1 정량적 분석 결과

러시아어 ST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된 문장을 한국어 TT에서 취해진 번역 전략에 따라 크게 ‘ST에서 생략 기제 보존’(이하 ‘보존’) 유형과 ‘TT에서 문장 성분 환원’(이하 ‘환원’) 유형 두 가지로 분류했고, 문장 성분별로 하위 항목을 나누었다. 각각의 항목별 비중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ST의 생략 기제 보존 및 TT에서 환원된 문장 성분의 수

분석 작품 (문장 수)	번역 전략	ST의 생략 기제 보존						TT에서 문장 성분 환원					
		주어			동사	목적어	소계 (비율)	주어			동사	목적어	소계 (비율)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유리 나기빈 단편집 (92)	메아리 (42)	17	10	4	2	4	37 (88%)	0	1	1	3	0	5 (12%)
	백발급구 (24)	9	4	3	4	0	20 (83%)	1	0	0	2	1	4 (17%)
	타인의 심장 (4)	3	1	0	0	0	4 (100%)	0	0	0	0	0	0 (0%)
	성공의 절정(현대적 이야기) (22)	10	7	2	0	0	19 (86%)	0	0	1	2	0	3 (14%)
	소계	39	22	9	6	4	80 (87%)	1	1	2	7	1	12 (13%)
	여행 가방 (208)	관란트 산양말 (25)	10	8	4	1	0	23 (92%)	0	0	1	1	0
특권층 구두 (17)	9	3	3	1	0	16 (94%)	0	0	1	0	0	1 (6%)	
점잖은 더블버튼 양복 (40)	19	6	8	3	0	36 (90%)	2	1	0	1	0	4 (10%)	
장교용 벨트 (46)	15	13	10	1	0	39 (85%)	4	0	2	1	0	7 (15%)	
페르낭 레제의 잠바 (17)	6	4	5	2	0	17 (100%)	0	0	0	0	0	0 (0%)	
포플린 셔츠 (5)	2	1	0	1	0	4 (80%)	0	0	1	0	0	1 (20%)	

겨울모자 (23)	15	6	2	0	0	23 (100%)	0	0	0	0	0	0 (0%)
운전장갑 (35)	14	7	9	0	0	30 (86%)	3	0	2	0	0	5 (14%)
소계	90	48	41	9	0	188 (90%)	9	1	7	3	0	20 (10%)
눈사태 (117)	40	26	13	20	8	107 (91%)	1	1	4	3	2	10 (9%)
총계 (417)	169	96	63	35	12	375 (90%)	11	3	13	13	3	42 (10%)
	(45%)	(26%)	(17%)				(9%)	(3%)	(26%)			
	328 (87%)						26 (62%)					

<표 2>에서 보다시피 전체 분석 대상인 417개의 문장 중 번역문에서 생략의 기제가 보존된 경우는 총 375문장으로 비중은 90%로 나타났고, 번역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환원된 수는 42개로 그 비중은 10%였다⁶⁾. 작품별로도 『유리 나기빈 단편집』은 보존이 80개(87%), 환원이 12개(13%), 『여행가방』은 보존이 188개(90%), 환원이 20개(10%), 『눈사태』는 보존이 107개(91%), 환원이 10개(9%)를 차지해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본고의 분석 작품에서는 각각의 작품별로 다른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지만, 노한 번역 시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가 대체로 보존되어 번역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번역가의 스타일에 따라 번역 전략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의 분석 결과가 모든 번역가의 전략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번역가마다 번역 전략의 잣대를 원문의 충실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독성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따라 번역 방식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생략 기제를 보존하는 번역의 비중과 생략된 문장 성분의 환원 비중은 번역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6) 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외(2019)에서는 한국어에서 생략된 인칭대명사가 5개 언어, 즉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에서 각각 생략된 인칭대명사의 환원된 비율을 분석했는데, 러시아어의 경우 번역된 대화문에서 인칭대명사가 환원된 비율은 33.3%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보다 러시아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생략 기제가 보존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 대명사 탈락 언어(pro-drop language)에 해당되지만 한국어에서 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ST의 생략 기제가 보존된 비중을 문장 성분별로 살펴보면, 주어가 328개(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사 35개(9%), 목적어 12개(3%)로 나타났다. ST의 생략 기제 보존 유형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 328개 중 인칭별 비중을 살펴보면, 1인칭의 생략 사례가 169개(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인칭이 96개(26%), 3인칭이 63개(17%)를 차지했다. 러시아어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한국어에서도 보존이 가능하고 한국어의 특성상 1인칭 및 2인칭 호칭을 대화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도착어에서도 자연스러운 생략 기제를 원문에서와 같이 대부분 보존하고 있었다. 3인칭 주어의 생략 사례에서는 담화 맥락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때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를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보존했다.

한편 TT에서 생략 기제가 환원된 비율을 살펴보면, 주어가 26개(62%)로 가장 많았고, 동사 13개(31%), 목적어는 3개(7%)였다. 문장 성분 중 주어의 환원 비율이 높았던 것은 3인칭과 1인칭 주어의 환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인데, 환원된 주어의 경우 3인칭이 13개(31%)로 가장 많았고, 1인칭이 11개(26%), 2인칭이 3개(5%)로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대화문의 화자와 청자가 1인칭과 2인칭 주어일 때 대체로 주어를 생략하나 맥락에서 화자 또는 청자의 의도를 강조하거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호칭을 통해 드러내고자 할 때 화용적 의도에 따라 문장 성분을 명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사례 분석은 다음의 정성적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4.2 정성적 분석 결과

4.2.1 ST에서 생략 기제 보존 유형

한국어와 러시아어 모두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ST에서 생략 기제를 보존한 비중이 90%로 나타났다. 이중 1인칭과 2인칭 주어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한국어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를 명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이와 같은 생략 기제는 도착어인 한국어에서도 보존해 번역되었다.

- (1) 1인칭 주어의 생략, 『여행가방』 중 「짐값은 더블버튼 양복」의 사례

ST: (Я) Зарабатываю мало.

TT: ∅ 얼마 못 받거든요.

(2) 1인칭 주어의 생략,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백발급구」의 사례

ST: Вы торопитесь? Может, (мы) побродим по городу?..

TT: 저기, 바쁘신가요? ∅ 시내가 산책할까요?

사례 (1), (2)는 러시아어 원문에서 1인칭 주어를 생략한 문장을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보존한 경우이다. 러시아어의 경우 동사는 인칭별로 어미 변화를 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라도 동사의 어미 변화형을 통해 주어의 인칭과 수를 알 수 있다. (1)의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생략된 주어 ‘나(Я)’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1인칭 주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한국어에서도 대화문에서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맥락상 이해가 가능하기에 1인칭 또는 2인칭 주어를 생략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2)의 첫 문장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 주어를 명시했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원문에 생략된 1인칭 주어 ‘Мы[우리]’가 한국어 문장에서도 생략되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문장은 러시아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서 모두 통사적으로 영주어의 속성을 지닌다.

(3) 2인칭 주어의 생략, 『눈사태』 사례

ST: (Вы) Хотите кофе?

TT: ∅ 커피 마실래요?

(4) 2인칭 주어의 생략, 『여행가방』 중 「점잖은 더블버튼 양복」의 사례

ST: Зачем мне татарин?! (중략) Нужен узбек. (Ты) Возьмешься за это дело?

TT: 내가 따따르 사람을 갖다 뭐하게? (중략) 필요한 건 우즈벡 사람이야.

∅ 언제 해볼 텐가?

(3)에서는 원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커피 마실지?’ 묻는 문장에서 2인칭 주어를 생략했고 번역문에서 마찬가지로 2인칭 주어 ‘Вы[당신]’이 생략된 채로 번역되었다. (4)에서도 2인칭 주어 ‘Ты(너)’가 생략되었지만, 러시아어 동사가

2인칭 단수의 형태로 어미 변화하여 주어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한국어에서는 대화 맥락에서 2인칭 호칭의 생략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5) 3인칭 주어의 생략, 『여행가방』 중 「점잖은 더블 버튼 양복」의 사례
 ST: В подъезде напротив живет интеллигентная дама. Утром (она) гуляет с детьми.
 TT: 맞은 편 아파트에 인텔리로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살고 있어. 아침에는 ∅ 애들이랑 산책을 하던데.

(6) 3인칭 주어의 생략, 『여행가방』 중 「특권층 구두」의 사례
 ST: (Я) Знал одну еврей ку. (Мы) Сошлись. (Она) Готовила неплохо...
 TT: ∅ 알고 지내던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 ∅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지. ∅ 음식도 괜찮게 했는데.....

사례 (5)에서는 화자가 3인칭 인물을 한 번 언급한 뒤 이후 문장에서 3인칭 주어 ‘Она(그녀)’를 생략했다.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또한 3인칭 주어 ‘그녀’를 생략한 채로 ‘아침에는 ∅ 애들이랑 산책을 하던데’로 번역하여 원문과 같은 형식의 생략 기제를 보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3인칭 주어의 생략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6)에서는 ST 첫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발화자 ‘나(Я)’,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발화자 ‘나’를 포함하는 1인칭 복수 형태의 인칭대명사 ‘우리(Мы)’, 세 번째 문장에서 최초 언급된 ‘유대인 여자’를 지칭하는 3인칭 인칭대명사 ‘그녀(Она)’가 모두 생략되었다. 물론 러시아어에서 생략된 주어는 동사의 어미 변화형과 맥락을 통해 생략된 주어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환원해서 “내가 알고 지내던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지. 그녀는 음식도 괜찮게 했는데.....”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나, 번역가는 원문에서 추구한 스타일을 보존하면서 한국어에서도 자연스러운 주어 생략의 기제를 사용하여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7) 주어와 동사의 생략,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메아리」 사례
 ST: (Ты) (собираешь) И папиросные коробки?
 TT: ∅ 담뱃갑도 ∅?

위의 사례 (7)의 원문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의미를 강조하는 조사 ‘И(도)’와 목적어 ‘담뱃갑(папиросные коробки)’뿐이다. 이 같은 문장의 구성은 ST의 대화문에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제로 원문에서의 문체 효과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즉 번역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Ты [너]’와 동사 ‘모으다’의 2인칭 단수 변화형 ‘собираешь’가 그대로 생략되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8) 동사와 목적어의 생략, 『눈사태』 사례

ST: Но нам будут мешать.

TT: 하지만 우리를 방해할 거야.

ST: Кто (мешать) (нам)?

TT: 누가 ∅ ∅?

ST: Твой круг (мешать) (нам).

TT: 당신 주위 사람들이 ∅ ∅.

TT에서 ST의 생략 기제를 유지한 경우 동사와 목적어의 생략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사태』의 사례 중 (8)에서 ‘Но нам будут мешать(하지만 우리를 방해할 거야)’라는 발화에 대해 다음 말 차례의 화자가 ‘Кто(누가)?’라고 묻는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 ‘방해하다(мешать)’와 목적어 ‘우리를(нам)’이 생략되었는데, 이와 같은 생략 기제가 TT에서도 그대로 보존되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말 차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Твой круг(당신 주위 사람들이)’만으로 문장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문장에서는 동사 ‘방해하다(мешать)’와 목적어 ‘우리를(нам)’이 생략되었고 주어만으로 문장을 구성했는데, ST에서 사용된 생략 기제가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번역되면서 원문의 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했고 도착어에서도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4.2.2 TT에서 문장 성분 환원 유형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환원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도 원문과 같이 문장 성분을 생략할 경우 자연스럽게 않거나 또는 원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문장 성분의 환원이라는 번역 전략이 사용되고 있었다.

(9) 1인칭의 환원, 『여행가방』 중 「장교용 벨트」 사례

ST: (Я) Хочу красивую девушку, спортсменку! Дай те мне спортсменку! Сколько я должен ждать?!

TT: 난 예쁜 아가씨, 여자 운동선수가 좋단 말이야! 여자선수를 데려다 줘!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10) 1인칭의 환원,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백발급구」 사례

ST: (Я) Думаю, что он хороший специалист.

TT: 내 생각에 그는 훌륭한 전문가야.

(9)와 (10)은 러시아어 원문에서 생략된 1인칭 주어를 한국어 번역문에서 환원한 사례이다. (9)에서는 러시아어 원문에서 1인칭 주어 ‘Я(나)’를 생략했지만, 번역문에서는 주어 ‘난’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화용적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문에서 생략되었던 1인칭 주어 ‘Я(나)’를 환원했는데, 이 경우 문장 성분이 변형되었다.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он хороший специалист(그는 훌륭한 전문가야)’를 목적어로 하는 인지 동사 ‘생각하다(думаю)’가 종속절로 구성되었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내 생각에’라는 문장 부사어로 번역되면서 ST에서 생략되었던 문장 성분 1인칭 주어가 환원되었다.

(11) 2인칭 주어의 환원,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메아리」 사례

ST: (Ты) Хочешь, (я) покажу?

TT: 네가 원한다면 ∅ 보여줄까?

(12) 2인칭 주어의 환원, 『여행가방』 중 「점잖은 더블버튼 양복」 사례

ST: Какой ты умный! Ясно, что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о у меня же — сроки. Не говоря о том, что командировочные фонды давно израсходованы... Короче, (ты) хочешь заработать пятьдесят рублей?

TT: 아이구, 머리도 좋으셔라! 그래, 우즈베키스탄에서 데려오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라구. 출장 자금은 진작 다 바닥났고

말이야…… 거두절미하고, 자네 50루블 벌고 싶나?

본 연구의 분석 작품에서 2인칭 주어가 환원된 사례는 두 군데였다. (11)의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2인칭 주어 ‘네가(Ты)’와 1인칭 주어 ‘내가(я)’가 생략되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2인칭 주어를 환원하여 명시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1인칭 주어는 생략 기제를 보존했다. 사례 (12)에서는 러시아어 원문에서 생략된 2인칭 주어 ‘ТЫ(너)’를 한국어 번역문에서 ‘자네’라고 명시하며 환원해 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번역문에서 2인칭 주어 ‘자네’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2인칭 주어를 명시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3인칭 주어의 환원,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메아리」 사례

ST: А (твоя мама) тебя пустят?

TT: 근데 너희 엄마가 보내 주실까?

(14) 3인칭 주어의 환원, 『여행가방』 중 「장교용 벨트」 사례

ST: Психа везем на Иоссер. Какой -то зэк рехнулся в четырнадцатом бараке. Между прочим, (он) тетю Шуру укусил.

TT: 정신병자를 이오세르에 데려가야 해. 14호에 있던 죄수 녀석이 맛이 갔대. 한술 더 떠서 녀석이 슈라 아줌마를 물었다는 거야.

(15) 3인칭 주어의 환원, 『여행가방』 중 「운전장갑」 사례

ST: (Люди) Меня примут за идиота.

TT: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알 텐데.

(16) 3인칭 주어의 환원, 『눈사태』 사례

ST: Вот это и не надо делать. Если позвонить и сказать, где деньги, (они) придут и заберут.

TT: 그것만은 안 돼. 만일 전화해서 돈이 어디 있다고 말하면, 그들이 가서 집어 갈 거야.

(13)~(16)은 러시아어 원문에서 3인칭 주어가 생략되었고,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이를 환원해 준 사례들이다. (13)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담화 맥락에서 3인

칭 주어의 추측이 가능하므로 ‘너희 엄마(ТВОЯ МАМА)’를 환원해 주었고, (14)에서는 러시아어 원문에서의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러시아어 원문에서 생략된 ‘그(ОН)’라는 대명사 대신 ‘너석이’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번역했다. 한국어 대화문에서는 이와 같은 호칭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명시적 표현을 사용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화용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이나라 2014: 154-155). (15)에서 러시아어 원문은 3인칭 복수의 주어가 생략된 비한정 인칭문으로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이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람들이(ЛЮДИ)’라는 주어를 사용해 명시화했다. (16)에서는 ST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비한정 인칭 주어를 3인칭 복수 대명사 ‘그들(ОНИ)’로 환원하여 생략된 주어를 번역해 주었다.

(17) 동사의 환원, 『유리 나기빈 단편집』 중 「메아리」 사례
 ST: Да ты что?.. За все время (собрал)!..
 TT: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모은 건데!

(18) 동사의 환원, 『여행가방』 중 점잖은 더블버튼 양복」 사례
 ST: (Я) Хочу (заработать).
 TT: ∅ 벌고 싶지!

(19) 동사의 환원, 『눈사태』 사례
 ST: Ты куда (поедешь)?
 TT: ∅ 어디 가니?

(17)~(19)는 동사가 환원된 사례들이다. (17)의 러시아어 원문에서는 ‘모으다(собрал)’라는 동사가 생략되었지만, 한국어에서는 환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번역가가 환원이라는 기제를 통해 원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명시 화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한국어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에서는 1인칭 주어 ‘나(Я)’와 동사 ‘(돈을) 벌다(заработать)’가 생략되었고 ‘~를 하고 싶다’의 의미를 지닌 양상 동사 ‘хотеть’의 1인칭 어미 변화형만이 화자의 발화에 등장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동사 ‘벌다’

가 환원되었는데, 이는 (18) ST에 선행하는 말 차례에서 “Короче, хочешь заработать пятьдесят рублей?(거두질미하고, 자네 50루블 벌고 싶나?)”의 발화 내용을 토대로 동사를 환원해 번역한 것이다. 즉 번역가는 원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의 측면에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생략된 동사를 환원하여 명시화하는 번역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19)는 운동동사의 생략 사례를 보여준다. 러시아어 원문 ‘Ты куда?’를 직역하면 ‘너 어디로?’가 되는데 러시아어 의문대명사 ‘어디로(куда)’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러시아어 구어에서는 운동동사가 자주 생략된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생략된 운동동사 ‘가다(поедешь)’를 생략할 경우 매끄럽지 못한 한국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동사를 환원하여 번역해주었다. 한편 (19) ST에서 명시된 2인칭 주어 ‘너(Ты)’를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했는데, 이는 한국어 대화에서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될 때 발화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을 보여준다.

(20) 목적어의 환원, 『눈사태』 사례

ST: (Ты) Поешь (что-нибудь)?

TT: ∅ 뭐 좀 먹겠나?

(21) 목적어의 환원, 『눈사태』 사례

ST: (Они) Затопчут (тебя).

TT: ∅ 자네를 짓밟을 걸세

위의 (20), (21)은 원문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환원된 사례이다. (20)의 러시아어 원문에는 ‘먹다(поешь)’라는 타동사가 2인칭 단수의 어미 변화한 형태로 등장했고, 주어 ‘너(Ты)’와 목적어 ‘무엇이든(что-нибудь)’이 생략되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목적어 ‘뭐(무엇이든)’을 환원해 번역했는데, 만약 한국어에서 ‘먹다’라는 동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자가 ‘먹겠니’라고 발화했다면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한국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생략된 목적어를 환원하여 ‘뭐 좀 먹겠나?’로 번역해 주면서 보다 가독성 좋은 번역 결과물이 되었다. (21)의 러시아어 원문은 3인칭 복수 형태의 비인칭 한정문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채로 문장이 구성되었다. 이 문장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주어 ‘그들이(Они)’

를 영형 주어의 형태로 ST에서와 동일하게 생략했고, 목적어 ‘자네를(тебя)’은 명사화하여 번역해주었다. 물론 원문과 동일하게 2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짓밟을 걸세’로 번역해도 한국어 문법상 어색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독성을 고려해 동사의 행위 대상인 ‘자네를’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환원이라는 번역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노한 문학 번역에서 원문의 생략 기제가 번역문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러시아어 대화문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대체로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생략 기제가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된 문장 성분의 번역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품별로 소소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분석 대상 문장 중 90%가 러시아어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를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보존했다. 이는 두 언어가 모두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한 언어로 러시아어에서의 생략 기제를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보존하여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문장 성분별로 생략과 환원의 양상을 비교했을 때 생략 기제를 보존한 비중은 1인칭, 2인칭, 3인칭의 순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사와 목적어 순이었다. 이는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 대화문에서 1인칭과 2인칭 주어의 생략이 자연스러운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어의 생략 기제를 그대로 보존한 비중은 전체 생략 기제 보존 유형의 사례 중 1인칭 주어가 45%, 2인칭 주어가 26%로 비교적 비중이 컸지만, 3인칭 주어는 생략 기제를 보존하는 비중이 17%로 다른 인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ST에서 3인칭 주어의 생략 기제가 TT에서 보존된 경우는 발화자가 대화 맥락에서 3인칭 주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만 나타났다. 한편 ST의 생략된 동사와 목적어가 생략 기제를 그대로 보존한 경우는 각각 9%와 3%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

다. 따라서 노한 문학 번역에서 대화문의 경우 생략 기제가 사용된 원문의 스타일을 대체로 그대로 보존해 번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를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번역문에서는 ST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명시화하기도 했는데, 전체 문장 성분의 환원 사례 중 3인칭 주어와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였고, 다음으로는 1인칭 주어가 26%, 목적어 7%, 2인칭 주어 5% 순으로 나타났다. 1인칭과 2인칭 주어가 환원된 사례로는 화용적인 목적의 도구로 작품 내에서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주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해 생략된 성분을 환원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어 원문에서의 생략 기제가 대체로 한국어에서도 보존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을 환원해 번역함으로써 ST에서의 생략 기제 용법이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노한 번역 시 ST에서 생략 기제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번역가는 작품의 맥락과 화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 생략을 보존할지, 아니면 생략된 문장 성분을 명시화하여 환원시킬지를 정하여 번역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에서 작용하는 생략 기제에 대한 이해는 반대로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적합한 번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서 기인한 생략과 환원이라는 기제가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노한 번역 시 활용될 수 있는 번역 문체와 전략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번역학에서 생략의 기제를 고찰하는 것은 번역가가 원문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옮길지를 결정하는 번역 전략의 차원에서부터 번역 결과물 품질의 향상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실제 번역된 문학작품의 사례를 살펴보았기에 번역

실무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학술적으로도 노한 번역 전략 연구에 있어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텍스트 장르의 번역에서 생략과 환원의 양상을 살펴볼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러시아어 및 한국어 수업, 문학 번역 수업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양국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두 언어의 생략과 환원이라는 기체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언어습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밖에 노한 문학 번역 수업에서 본 연구의 성과를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원작의 문체를 고려해 번역 전략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분석 대상을 대화문에서 생략 기체가 사용된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어의 특성상 대화문에서 1인칭과 2인칭의 생략 비중이 러시아어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원문에서 명시된 1인칭 또는 2인칭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생략된 사례들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략 기체와 관련된 보편적인 번역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T에서 생략 기체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TT에서 생략 기체가 사용된 사례, 그리고 대화문의 범위를 넘어서 서술문에서의 생략과 환원의 유형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순길 (2012) 「텍스트에서의 인칭대명사 생략현상 및 요인①」, 『중국조선어문』 2012(2): 25-30.
- 김순미 (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 (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김일웅 (1984) 「대명사의 생략현상」, 『언어학연구』 7: 1-20.
- 김정석 (2019) 『생략과 초점: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 김한식, 강동희, 남슬기, 서승희, 석주희, 송신애, 최지수, 홍승빈 (2019) 「인칭 대명사 생략 문장의 A-B번역 양상: 소설 <프라자호텔>을 중심으로」, 『통

- 역과 번역』 21(3): 31-54.
- 김혜연 (1999) 「한국어 대화상에서의 화자와 청자에 대한 지칭 표현」, 『담화와 인지』 6(1): 73-100.
- 남혜현 (2005) 「러시아어 영주어의 지시적 속성」, 『슬라브어 연구』 10: 303-318.
- 문영자 (2005) 「한국어 담화문에서의 생략현상」, 『한국(조선)어교육연구』 3: 17-29.
- 박소영 (2014) 「한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와 생략이론」, 『언어학』 68: 35-57
- 박옥수 (2013) 「한영문학 번역의 대화체에서 드러난 생략어의 번역」, 『동화와 번역』 25: 171-192.
- 박윤철 (2008) 「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 『번역학연구』 9(4): 171-194.
- 박청희 (2012)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통계적 접근」, 『어문논집』 66: 171-191.
- 박청희 (2013) 「현대 국어의 생략 현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승현 (2002) 「슬라브어에서 영주어의 매개 변형(null subject parameters)에 대한 연구」, 『노어노문학』 14(1): 53-78.
- 엄순천 (2006) 「생략(эллипсис)의 개념과 조건 및 대상: 현대 러시아어 구어체 담화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1: 383-410.
- 이나라 (2014) 「한국어의 1·2인칭 주어 생략 현상에 대한 재고: 명시적 주어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1(3): 145-163.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6.
- 이은순 (2007) 「러시아어 선행사 명사구의 생략과 대명사화」, 『노어노문학』 19(2): 51-78.
- 정연창 (2007) 「주어 생략에 대한 소고」, 『언어과학』 14(2): 101-120.
- 정정원 (2015) 「러시아어의 구조화된 술어 생략: 폴란드어, 체코어, 불가리아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31(1): 113-151.
- 최성호 (2013) 「교착 통사론」, 『언어학』 65: 3-37.
- 최운곤, 주선 (2017) 「한국어 주어 생략문과 무주어문의 중국어 번역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55: 373-398.

Halliday, Michael A. K. and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Грудева, Елена В. [그루데바, 엘레나 V.] (2007) ‘Избыточность и эллипсис в русском письменном тексте’ [러시아어 문어에서의 중복과 생략], *Череповец: ЧГУ* [체레포베츠: 체레포베츠 국립대학교], 226-232.

Касевич, Вадим Б. [카세비치, 바딤 B.] (2014). ‘Эллипсис и pro-drop’ [생략과 pro-drop], *Acta Linguistica Petropolitana.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Acta Linguistica Petropolitana. 언어학연구소논문집] 10(3): 315-323.

Салапура, А.А. [살라푸라, A.A.] (2019) ‘Эллипсис как норма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대화문의 규범으로서의 생략], *Беларусь, Брест, БрГУ имени А. С. Пушкина* [벨라루스, 브레스트, 푸쉬킨 브레스트 국립대학교] 138-141.

<분석 작품>

Нагибин, Юрий М. [나기빈, 유리 M.] (1960) *Эхо* [메아리], https://royallib.com/book/nagibin_yuriy/eho.html

Нагибин, Юрий М. [나기빈, 유리 M.] (1968) *Срочно требуются седые человеческие волосы* [백발급구], https://royallib.com/book/nagibin_yuriy/srochno_trebuyutsya_sedie_chelovecheskie_volosi.html

Нагибин, Юрий М. [나기빈, 유리 M.] (1968) *Чужое сердце* [타인의 심장] <https://bookshake.net/r/chuzhoe-serdce-yuriy-markovich-nagibin>

Нагибин, Юрий М. [나기빈, 유리 M.] (1970) *Пик удачи (Современная сказка)* [성공의 설정 (현대적 이야기)] <https://bookshake.net/r/pik-udachi-yuriy-markovich-nagibin>

Довлатов, Сергей Д. [도블라토프, 세르게이 D.] (1986) *Чемодан* [여행 가방] <http://sergeidovlatov.com/books/chemodan.html>

Токарева, Виктория С. [토카레바, 빅토리아 S.] (1995) *Лавина* [눈사태], <https://topreading.ru/uploads/posts/files/188367/pdf-tr-188367.pdf>

- 유리 나기빈 (2016) 『유리 나기빈 단편집』, 김은희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세르게이 도블라토프 (2010) 『여행가방』, 정지운 옮김, 서울: 뿌쉬킨하우스.
빅토리아 토카레바 (2017) 『눈사태』, 김서연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Ellipsis and Restoration in
Russian-to-Korean Literary Tran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tylistics and Translation Strategy**

Donghee K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llipsis mechanism present in the source text written in Russian and how it appears in the translated Korean literary text. The research reveals that most of the ellipsis mechanism present in the Russian source text was retained in the Korean text. However, in some cases, the Korean translated text did not follow the same ellipsis mechanism as the source text; instead, the translator included the missing sentence components. Approximately 90% of the Russian sentences that had used the ellipsis mechanism remained unchanged in the translated Korean text due to both languages being pro-drop languages. In some cases, the translator did not preserve the source text's ellipsis mechanism; instead, they included the missing components in the translated text. Restoring components took the form of third-person subject and verb at 31% each, followed by first-person subject at 26%, object at 7%, and second-person subject at 5%. When restoring first and second-person subjects, the text revealed the author's pragmatic intent by applying a strategy of explicitly including the omitted sentence components. Therefore, when translating, the translator needs to think about the context of the literature and consider whether to retain the ellipsis mechanism present in the source text or include the missing sentence components to preserve the pragmatic intent of the author.

Keywords: ellipsis, restoration, literary translation, stylistic, translation strategies

주제어: 생략, 환원, 문학번역, 문체, 번역 전략

강동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특임강의교수

yulia.kang@gmail.com

관심 분야: 문학번역, 번역 전략, 문체

논문 투고: 2023년 2월 21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8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6일